

筆巖書院 山仰會報



복원된 훈몽재(訓蒙齋) 모습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45-1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河西 先生의 천품과 학문에 관한 史官의 評價¹⁾

朴秉濠 원장(한국학술원 회원)

1. 이 글의 목적

河西 선생은 道學 · 文章 · 節義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으면서도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동방의 周子요 호남의 洙泗로 추앙되어 文廟에 배향되었다. 先生이 돌아가신 후 그 천품과 학문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쌓여 왔으며, 資料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 개인의 문집 · 언행록 · 詩文, 특히 『河西全集』 등에 있는 敍述에 의거하여 그 所以然이 입증되어 있으며, 특히 선생의 사상과 학문에 관하여는 靜的 視角에서뿐만 아니라 動的 視角에서 그 정치사적 의미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백승중 교수의 조선 전기의 사림 정치와 하서 김인후(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3집)와 김정수 선생의 전라도 사람들 6-조선시대 김인후-(도서출판 장문산)를 들 수 있으니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쌓인 연구업적에 더 보탬 만한 글을 쓸 여지가 없다 하겠

다. 다만 연구자들이 간과하였거나 관심이 소홀했던 것으로서 史官들의 선생에 대한 當代 평가를 재exam하면서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선생의 천품과 학문에 대한 최초의 서술

河西 선생은 명종 15년(1560) 정월 16일 51세로 서거하셨다. 서거하자마자 문인인 송강 정철과 금강 기효간이 선생의 도덕과 조신이 오래 되면 인멸될까 두려우니 사위이며 문인인 고암 양자징에게 선생의 家狀을 지으라고 해서 자료를 모아 명종 16년(1561) 11월에 家狀 서술을 완료했으며, 이 家狀에서 선생의 천품과 학문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출생 때부터 10세까지는 아버지인 참봉공의 자세한 기록을, 16세부터 40세까지는 선생의 手記에 의거하여 서술했다. 선생의 문집인 『河西集』은 서거하신 지 8년 후인 선조 원년(1568) 2월에 간행되었는데,

1) 2012년 秋享祭 初獻 후院長 취임 강론임.

선생의 문적은 화재로 타서 『西銘事天圖』·『周易觀象篇』 등 여러 책은 보지 못했고 遺稿를 수집하기 8년 만에 완성되어 上梓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행 경과와 여러 사실은 맞사위이며 문인인 月溪 趙希文의 序에 나와 있다. 月溪는 이 序에서 또한 河西 선생의 천품과 독서의 광범함과 학문적 관심·학문적 깊이·詩文의 특색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河西集』이 간행된 후에는 후대의 뜻있는 사람들은 선생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선생의 道學(性理學)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中宗代 史官들의 評價

조선시대에 政事나 事件·人物에 관한 평가는 入侍했던 史官들에 의하여 행해지며 註記의 형식으로 보충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王이 사망한 뒤에 실록을 편찬할 경우에 검토를 거쳐 기술된다. 가장 기초적인 편찬 작업을 하는 史官은 예문관의 翰林인 奉敎(정7품) 2명, 待敎(정8품) 2명, 檢閱(정9품) 4명이 실록 편찬 관서인 春秋館의 記事官을 겸직하여 실록 편수의 실무를 담당하며 그 위로 記注官·編修官·修撰官 등이 관여한다. 예문관의 한림은 홍문관 관원과 마찬가지로 淸華職이며, 品階는 낮으나 文官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영광된 자리로서 관료 엘리트 코스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편찬되면 史庫에 보관되는데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왕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 침략 후부터이다. 즉, 일제는 1929~1932년 사이에 경성제국대학에서 太白山本을 底本으로 4분의 1로 축소하여 30부를 영인한 뒤 일본 본토에 22부를 가져가고 국내에 8부를 두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경성제대 도서관이나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만 열람 가능했다. 그 후 1955~1960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太白山本을 영인하여 색인과 함께 48冊을 간행하게 되어 비로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河西 선생에 관한 실록 기사도 이때 이후에 볼 수 있게 되었으며, 『河西集』을 크게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河西 선생과 관련된 『中宗實錄』은 명종 5년(1550) 9월에 찬진되었고, 그 편수에는 좌의정 李崐가 監事로서, 工曹參判 尹元衡이 同知事로서 관여했고, 『明宗實錄』은 선조 원년(1568) 8월에 영의정 이준경의 주재 하에 편수관들을 임명하고 3년 뒤인 선조 4년(1571) 4월에 완성되었다.

河西 선생은 중종 26년(1531)에 22세로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31세인 중종 35년(1540)에 文科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 부정자(종9품)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중종 38년(1543) 12월 玉果縣監으로 부임하여 이듬해 11월에 중종이 돌아가고 36세 때인 인종 원년(1545) 7월에 인종이 돌아감으로써 옥과 현감직을 사직했고, 그 후에는 관직이 제수되어도 일체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직 생활은 중종 말년의 5년여(1540~1545)에 불과하다. 이 짧은 동안에 副正字 부임, 다음해(32세) 4월에 젊은 文臣 중 文學特異者로서 王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湖堂(讀書堂)에서 賜暇讀書을 하는 特典을 누리어 6개월의 독서 후, 10월에 弘文館 正字(정8품)에 임

명되었다. 이 때 13명이 湖堂에 뽑혔는데, 이 중에서 송기수·나세찬·이 황·임형수·김 주·정유길·민 기 등이 있으며, 모든 선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듬해(중종 37년) 7월에는 홍문관 著作(정8품)으로, 그 이듬해 4월에는 홍문관 博士 겸 세자시강원 說書(정7품)로, 6월에 홍문관 부수찬(종6품)으로 승진하였으나 8월에 말미를 얻어 고향에 내려왔는데, 12월에 玉果縣監(종6품)을 제수받고 春秋館 記事官도 겸하였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일은 홍문관 正字로 임명되면서 동시에 經筵의 典經(정9품)을 겸직하여 중종 37년(1542) 3월 25일 경연에서 발언하였고, 중종 38년(1543) 7월 20일에는 홍문관 수찬(정6품)으로서 경연 檢討官(정6품)을 겸하여 朝講에 참석하여 己卯名賢들의 伸冤을 주장하였고, 7월 22일에는 晝講에 나아가 이틀 전의 進言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 때 特進官 이언적이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다.

經筵官은 학문과 인품이 탁월한 文官이 겸직하는 것으로 가장 명예로운 벼슬이며, 여러 가지 특별대우를 받는 淸華職이며, 참석자인 侍講官(정4품) 이하는 홍문관의 副應敎 이하 관원이 겸직하며, 그 선정은 대신과 吏曹의 堂上官들이 궐내의 회의 장소인 賓廳에 모여 협의한 후 후보자를 상주하여 선임하였다. 河西 선생은 처음의 승문원 부정자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엘리트 홍문관 관원으로서 경연관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경연 검토관으로서 朝講에서 아뢴 것은 『중종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이하 실록 기사
의 번역이 부적절한 것이 적지 않으므로 원문을
함께 실었다.)

검토관(檢討官) 김인후(金麟厚)가 아뢰었다.

“근래 이를 데 없는 소인(小人)【심정(沈貞)·이항(李沆)을 가리킨다.】으로서 죽어도 죄가 남을 자는 다 복직(復職)되고, 한때 잘못된 일은 있더라도 그 본심은 나라를 속이지 않은 자【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김정(金淨)·기준(奇遵)·윤자임(尹自任)·한충(韓忠)을 가리킨다.】는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상은을 입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숭상하던 글【《소학(小學)》·《향약(鄉約)》 등의 글을 가리킨다.】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²⁾

위의 괄호 안은 史官이 註記한 것이다. 중종은 검토관 김인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른다고 하고 승지 홍섭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승지 홍섭(洪暹)에게 전교하기를,

“김인후가 아뢴 전말을 잘 듣지 못하였는데, 과연 어느 사람을 가리킨 것인가?”

하니, 홍섭이 회계하였다.

“신도 미처 잘 듣지 못하였으므로 시관(史官)에게 물으니, 본심이 나라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묘한 사람(조광조(趙光祖) 등임.)을 가리킨 것이라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위에서 홍섭에게 물은 것은 참으로 그것이 어느 사람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아

2)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1543) 7월 20일(계묘).

랫사람의 뜻을 살피려고 끌어대어 물은 것인 줄을 어찌 알겠는가. 어찌면 위의 마음을 다시 밝힐 수도 있었고 사림(士林)의 분하고 답답한 뜻을 풀 수 있었으니, 홍섬으로서는 물음에 따라 분명히 가려서 곧바로 이뤄야 옳은데, 홍섬도 ‘신도 미처 잘 듣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그 흐릿하게 말하여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생각이 교묘하거니와, 위의 물음을 저버리는 것은 어찌하는가. 후설(候舌)의 벼슬을 맡은 자가 본디 이러한 것인가? 감히 곧바로 이뤄지 못하였을 뿐이 아니라, 또 사관에게 물어서 이뤄었다면 이것은 회계하는 말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려 한 것이다. 저 사관은 어떤 사람인가? 홍섬이 묻더라도 저 사관은 알릴 것 없는데 알렸으니, 사관이 사관답지 않다.】³⁾

여기의 괄호 안도 史官의 註記이다. 또한 史官이 論評을 하였는데, 승지 홍섬의 흐릿한 擧止, 즉 검토관이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史官에게 물어서 ‘기묘년 사람’이라고 한 것과 홍 섬의 물음에 ‘기묘년 사람’이라고 답변한 史官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당시 기묘년 사람을 거론하거나 거명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검토관 김인후는 종종 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다시 결심하여 7월 22일의 晝講에서 재차 자세히 아뢰었으나 역시 종종이 伸冤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어서 特進官 이언적이 검토관의 건의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김인후(金麟厚)가 아뢰기를,

“천에 조강(朝講)에서 신의 말소리가 작아서 분명히 이뤄지 못하였으므로 지극히 황공합니다. 기묘년 사람은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 지은 사람 중에는 대역 부도(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흑복직(復職)된 자가 있는데, 기묘년 사람은 오히려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숭상하던 《소학》·《향약(鄉約)》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 《소학》·《향약》은 자양(紫陽)의 주자(朱子)와 남전(藍田)의 여씨(呂氏)의 글이며, 주자·여씨는 다 성현(聖賢)인데, 어찌 그 글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선비는 속상(俗尙)에 빠져서 읽어서는 안될 글이라 하여 버리니, 더욱 온편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묘년 사람을 아주 불쾌(不軌)로만 논하므로, 지금까지도 이런 말은 사람들이 다 촉범(觸犯)이라 생각하여 꺼립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은 이러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들이 마음을 쓴 것이 그르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조정이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소학》·《향약》을 사람 때문에 폐기할 수는 없다.”

하였는데, 특진관 이언적(李彦迪)이 이뢰었다.

“근래 강상(綱常)의 이변이 거듭 나타납니다. 무

3)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1543) 7월 20일(계묘).

지한 짐승일지라도 사랑의 천성은 없지 않으므로, 효경(梟獍)이 아니면 어미를 범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 중에는 도리어 짐승만도 못하여 부자·형제 사이에도 천륜을 끊는 자가 흔히 있으니, 이것은 일조 일석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림(士林)의 화(禍)【기묘년 사람을 가리킨다.】가 일어나 고부터 인심이 퇴패(頹敗)하고 풍속이 해란(毀亂)하여 사람들이 배우는 일을 하지 않고 음식과 남녀의 욕심만을 알기 때문에 비상한 이변을 자주 일으키니, 만세 뒤에 사책(史冊) 가운데에 어찌 부끄러운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조종 때에는 교화를 밝히고 인륜을 두텁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취재(取才) 때에도 《소학》을 모두 강(講)하였고,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고 또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권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다스림에 누를 끼치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오로지 학문에 힘쓰고 도라이 사유(四維)를 숭상하였으므로 그 전해온 풍속이 크게 변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나, 사림의 화를 겪고부터는 사람들이 다 교화를 말하기를 꺼려서 사습(士習)이 굴러지고 풍속이 밝지 않기가 한결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쌓인 폐단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조종을 본받아 교화를 밝히고 인륜을 두텁게 하는 데에 유념하신다면, 이랬사람이 저절로 보고 느껴 변화하여 날로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⁴⁾

이와 같이 河西 선생은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도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널리 소학을 가르침으로써 倫序를 바로 세우고 향약

을 실시함으로써 향촌 질서를 공동체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를 관철하고 그 전제로서 己卯土禍 희생자들을 伸冤하는 일이 중요한 時務라고 확신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이 信念化되어 몸소 실천에 옮겼으니 이는 인종이 즉위한 후 결실을 맺게 된다.

4. 明宗代 史官의 評價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한 후로는 조정 정사는 윤원형·이 기 등 小尹이 농단하게 되어 河西 선생은 더 이상 뜻을 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명종실록』과 『河西全集』 年譜에 의하면 명종 2년(1547)의 성균관 典籍(정6품), 工曹正郎(정5품), 명종 4년(1549) 여름과 겨울 두 차례 典籍, 명종 8년(1553)의 홍문관 校理(정5품), 명종 8년(1553)의 성균관 直講(정5품)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乙巳土禍(1545)와 2년 뒤의 丁未土禍(1547)로 선배·동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고, 윤원형은 河西 선생이 서거한 명종 15년(1560)까지 이조판서·우의정으로 있었고, 乙巳土禍의 원흉인 이기도 우의정·영의정(명종 4년)으로 있었고, 앞서 인종 때에도 이기는 병조판서, 임백령은 호조·이조판서로 있었으니 그 판에서 관직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윤원형이 河西 선생을 사건에 연루시켜서 화를 미치게 하려고 획책함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니 혹시 관직에 나아갔으면 틀림없이 일을 꾸며 해쳤을 것이다.

4)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1543) 7월 22일(을축).

그런데 명종대에 선생을 관직에 임명하는 기사에는 史官들이 선생의 성품이나 학문 또는 氣志에 관하여 註記를 하거나 評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로 알 수 있다. 이 기록들은 당시로서는 공개될 수 없는 기술이었다. 명종 4년(1549)부터 명종 8년(1553) 6월까지 관직 임명이 없었던 것은 부모상 때문이었는데, 명종 8년(1553) 7월 21일에 성균관 전적으로 임명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사람됨을 評하고 있다.

정대년(鄭大年)을 경기 관찰사로, 정준(鄭浚)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심봉원(沈逢源)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박영준(朴永俊)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박민헌(朴民獻)을 의정부 검상으로, 유순선(柳順善)을 사간원 헌납으로, 김인후(金麟厚)【김인후는 청렴하고 근신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속의 누(累)에서 벗어나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강호(江湖)에서 풍월을 읊조리고 있었다.】를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以鄭大年爲京畿道觀察使，鄭浚爲承政院右副承旨，沈逢源爲承政院同副承旨，朴永俊爲弘文館直提學，朴民獻爲議政府檢詳，柳順善爲司諫院獻納，金麟厚【清謹自守，脫落世累，優游詩酒，朗詠江湖。】爲成均館典籍。⁵⁾

명종 8년(1553) 8월 8일에는 홍문관 교리로 임명했는데, 역시 人品에 대하여 史官이 註記하였다.

윤인서(尹仁恕)를 승정원 동부승지로, 허백기(許伯琦)를 장례원 판결사로, 【허백기는 지난 기묘년에 선비로 자처했었는데 조광조가 살해된 이후로 갑자기 마음을 변하여 날로 더러운 행동을 하였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원형에게 붙어서 갖은 아양을 떨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그가 수령이 되어서는 탐욕과 방종을 거침없이 하였으며, 관물(官物)을 모두 윤원형의 집에 보내어 그의 환심을 샀다. 그러므로 그 자제들의 관직이 모두 윤원형의 손에서 나왔다. 지금 2품의 자급에 특별히 뛰어난 것조차도 부정한 길을 통해서였으니, 그 비루함이 그지없다.】김인후(金麟厚)를 홍문관 교리로 【김인후는 사람됨이 활달하고 청허(淸虛)한 너그러운 군자이다. 학행과 문장이 뛰어나 당시의 청망(淸望)을 받고 있었는데 을사사화 이후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병을 침략하여 나오지 않았다.】삼았다.

以尹恕爲承政院同副承旨，許伯琦爲掌隸院判決事。【伯琦，曩(有)(者)己卯年間，以士類自許，自趙光祖(死)後，遞變其心，日趨汚下，及乙巳禍起，附尹元衡，奴顏婢膝，恬不知恥。其爲邑宰，貪縱無忌，又盡輸官物於元衡之家，以要其喜悅，故其子弟之官，皆出於元衡之手，而特陞二品之階，亦由於邪逞。其鄙陋極矣。】金麟厚爲弘文館校理。【麟厚爲人，曠達淸虛，休休然君子人也。有學行文章，負一時淸望，自乙巳以後，絕意仕宦，托病不起。】⁶⁾

명종 8년(1553) 9월 19일에는 홍문관 교리 임

5)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6)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명에 대하여 河西 선생이 箋을 올리고 사양하였는데, 신병을 조리하고 올라오도록 하라는 傳敎를 내렸으며, 史官이 자세한 評을 하고 아울러 箋의 全文을 실었다.

정원에 전고하였다.

“김인후(金麟厚)의 전(箋)을 보니 그 뜻이 매우 간절하다. 그러나 어느 누가 숙환이 없겠는가. 임금을 섬기는 대의(大義) 또한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니, 신병을 조리하고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라.”

【김인후는 장성(長城) 사람이다. 학행이 있고 문장이 뛰어나 늘재(訥齋) 박상(朴祥)과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등 여러 현인의 칭찬을 받았다. 중종조 경자년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경연에 입시(入侍)하다가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걸군(乞郡)하였다. 이성(二聖) - 중종(中宗)·인종(仁宗) - 이 승하하자, 방상(方喪)을 입고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 뒤에 잇따라 부모상을 당하였는데, 슬퍼하는 마음과 예절이 잘 갖추어졌었다. 8~9년 동안 질병으로 침체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는데, 이제 홍문관 교리를 채수하고 교서를 내려 불렀다. 그의 전(箋)은 다음과 같다. “일월(日月)은 사사로이 비춤이 없어서 천광(天光)이 이래로 초려(草廬)에까지 미치니, 초목도 미미한 정이 있어서 해바라기가 위로 해를 향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던대 신 인후는 일찍이 오묘한 선비로서 갑자기 근시(近侍)에서 모시게 되었으나, 논사(論思)의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경연에서 식은 땀을 흘렸으며, 보양(輔養)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 또다시 시강원(侍講院)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성은은 바다와 태산보다 높았으나, 조금도 보답을 하지 못하였습

니다. 두 성군의 승하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부모를 잃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슬피 통곡하면서 생명을 보전하기를 바라지 않았었는데, 질병은 질질 끌면서도 요행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은 자주 열이 나서 번민증이 생기고, 신장은 냉해져서 아래가 허약해졌으며, 이와 머리털은 빠지고 얼굴과 정신은 날마다 쇠약하여졌습니다. 세월은 점점 흘러가는데 한갓 전마(犬馬)의 충성심만 품고 있을 뿐이며, 기억력이 어두워져 건망증이 심하니 어찌 유악(帷幄)의 명령을 펼 수 있겠습니까. 삼조(三朝)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어찌 한 가지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께서 영영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홀로 내 몸만이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효도하고자 한들 누구를 위하여 효도하겠습니까. 풍수지감(風樹之感)이 더할 뿐입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 주셨으니, 육아(蓼莪)의 망극함을 슬퍼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성은을 받으니, 서리와 이슬을 밟음에 상심됨이 더욱 깊습니다. 삼가 비록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성충(聖聰)을 돌리시어 소신의 간곡한 소청을 거두어 주셔서, 병든 몸이 감당하기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향에서 목숨을 마치도록 허락해 주소서. 훌륭한 선비를 선발하여 다시 채수하시어 빨리 윤음(綸音)의 성과를 거두소서. 이렇게 하시면 조정은 관작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소신은 전려(田廬)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감히 늙은 몸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누추한 시골에 살면서 그 즐거움을 변하지 않는 것은 비록 안자(顔子)의 밝은 마음을 본받지는 못하나, 강호(江湖)에 살면서 그 임금을 근심하는 것은 송신(宋臣)의 큰 절개와 가깝기를 바랍니다.”】

傳于政院曰：“觀金麟厚箋辭，至爲懇切，然誰無

宿疾? 事君大義, 亦不可恕. 調理上來事, 下書可也.”【麟厚, 長城人. 有學行, 文章冲遠, 爲訥齋朴祥, 慕齋金安國諸公所稱賞. 擢中宗朝庚子別試, 入侍經帷, 以便養乞縣. 遭二聖(中宗, 仁宗)上賓, 服方喪, 遂棄官歸. 其後連失怙恃, 哀禮備至, 沈淹疾病八九年, 人皆惜之. 今授弘文館校理, 下書徵之. 其箋曰: 日月無私照, 天光下及於蓬第. 草木有微情, 葵心上切於霄漢. 兢惶罔措, 隕越難(谷)(容). 伏念臣麟厚, 早以迂儒, 驟從近侍, 論思失職, 曾汗背於經筵, 輔養迷方, 重覲面於講院. 恩彌隆於海嶽, 報未效於涓埃. 哭華, 勳之未幾, 失怙特而無及, 攀號殞絕, 無望於生全. 疾病支離, 幸僅免於死滅, 心熱扇而上瘡, 腎冷致而下虛, 齒髮浸以摧頹, 形神日以凋喪. 歲月逾邁, 徒抱犬馬之誠, 記問昏忘, 奈申帷握之命? 累三朝之殊眷, 豈一介之堪膺? 矧新養之永違, 忍身榮之獨享? 雖欲孝, 誰爲孝也? 恒風樹之不停, 父生我, 母鞠我分, 哀《蓼莪》之罔極. 顧渙涯之踰分, 履霜露而增傷. 伏望主上殿下, 曲回聖聰, 傾納愚懇, 憫疲瘵之難任, 許畢命於松楸. 掄俊彥以改除, 亟收成於綸綍. 爵不僭於朝政, 願獲伸於田廬. 臣敢不敝屣桑榆, 罄竭芹曝, 在陋巷不改其樂, 縱未效顏子之明心, 處江湖而憂其君, 竊庶幾宋臣之大節.】⁷⁾

명종 8년(1553) 11월 22일에는 성균관 直講(정5품)으로 임명했는데, 이에 대하여 【史官曰】의 형식으로 論評을 했으며, 관직을 사직한 뒤에는 性理學에 더 연찬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유혼(柳渾)을 사간원 사간으로, 김인후(金麟厚)를 성균관 직강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인후는 호남 사람으로 젊어서 재명(才名)이 있었고 항상 시주(詩酒)로써 스스로 즐겼다.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다가 아버지가 늙었다는 이유로 결군(乞郡)하여 옥과 현감(玉果縣監)이 되었는데, 만기(滿期)가 되기도 전에 관인(官印)을 버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종신할 것을 마음에 두고 문밖에 나가지 않은 지 여러 해였는데, 만년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좋아하고 영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이해 가을에 경연에 결원이 있자 교리(校理)를 제수하고 하서하여 부르니 전(箋)을 올려 사퇴의 정을 진술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오래도록 이르지 않으니 지금 이 직으로 옮겼다.

以柳渾爲司諫院司諫, 金麟厚爲成均館直講.

【史臣曰: “麟厚, 湖南人也. 少有才名, 常以詩酒自娛. 及登第, 長侍經幄, 以親老乞邑, 爲玉果縣監, 未滿瓜期, 棄印徑歸. 甘心終老, 不出門者累年, 晚好性學, 絕意榮進. 是年秋, 以經幄闕員, 拜爲校理, 下書驛召, 遂上箋陳情, 辭甚懇切. 久而不至, 今遷是職.”⁸⁾

명종 9년(1554) 9월 3일 夜對에서는 경연참찬관 鄭惟吉이 河西 선생의 친품과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文翰職에 등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찬관 정유길이 이퇴기를,

7)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9월 19일(임술).

8)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11월 22일(갑자).

“지난날에 김인후(金麟厚)가 증종 조에 수찬(修撰)으로 있으면서 어버이를 봉양하러 가기 위해 정사(呈辭)하자 즉시 옥과 현감(玉果縣監)을 제수했었습니다. 신이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았는데, 그는 기국이 우환(迂闊)하고 또 술을 좋아하여 일을 맡겨 직무를 보게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글을 잘 지었고 천품이 매우 고매하여 임용할 만한 인재였습니다만, 그 뒤에 상사(喪事)를 당하고 병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몸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상에서 명소(命召)하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홍담(洪曇)에게 들으니, 그가 사는 집이 매우 곤궁하여 비와 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처자가 의탁할 데가 없으며, 서울에 왕래할 적에도 종을 떨리기가 또한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에서 관찰사에 하유하여 병이 나은 뒤에 한지(閑地)에 두고서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다면, 인재를 권면하는 뜻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말이 지당하다. 우리 나라가 글을 숭상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 사신이 오기 때문이다. 독서당(讀書堂)에 있는 인재들도 마땅히 장려해야 한다.”

上御夜對, 參贊官鄭惟吉曰: “往者金麟厚, 在中廟朝, 以修撰, 爲親求養呈辭, 卽除玉果縣監. 臣與其人同處, 其爲人氣宇迂闊, 性又嗜酒, 似不當於任事稱職矣. 然自少時能綴文, 天品甚高, 可用之材也, 但其後遭喪多病, 今爲廢疾之人, 故自上命召, 猶且不起. 臣聞諸洪曇, 其人居家窮甚, 其室不蔽風雨, 妻子無託, 往來京師, 僕從亦難也云. 請自上下

諭觀察使, 待其病愈, 使之置諸閑地, 以任文翰之用, 則勉勵人材之意, 可謂至矣.” 上曰: “所啓宜矣. 我國尙文華者, 專爲華使也. 讀書堂人材, 所當勸獎也.”⁹⁾

명종 10년(1555) 5월 4일 晝講에서 역시 참찬관 정유길(鄭維吉)이 학술과 문장을 지닌 사람들이 불러도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왕이 유념할 것을 건의했는데, 史官이 李滉과 金麟厚라고 註記하였다.

《근사록》을 진강했는데, 참찬관 정유길(鄭惟吉)이 이뢰었다.

“주자가 세상에 쓰이지 못하여 포부를 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이 책을 지어 후세에 도를 전한 것입니다. 상에서는 마땅히 그 당시의 임금이 이들을 쓰지 않은 것은 무슨 일 때문이고, 이들이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던지를 생각해 보시어, 그 옛날을 지금과 비교해 보시고 지금을 그전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사이 학술과 문장을 지닌 사람들이 더러는 머물러 있지 않고 물러가 있고 더러는 불러도 나오지 않아 【학술이 있으면서도 물러간 사람이란 이황(李滉)을 가리키고, 문장이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김인후(金麟厚)를 가리킨 것이다.】 모두 조정에 서기를 바라지 않으니, 상에서는 다시 더 살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근사록》은 뜻과 이치가 넓고 정밀하여 태극도설(太極圖說) 같은 것은 알기가 아주 어려우니,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이전에 나와 짚어가며

9)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1554) 9월 3일(신축)

논란하게 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종조에서는 강관이 엮드려 진강하면 말이 막히어 틔름은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웠기에 앉아서 진강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오만한 듯도 하지만 위아래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上御書講, 講《近思錄》. 參贊官鄭惟吉曰: “朱子不用於世, 無所施設, 故與呂祖謙, 作此書, 以傳道於後. 自 上當思時君之不用此人者何事歟, 此人之不容於朝廷者何故歟, 以古而視今, 以今而擬古可也. 近來有學術文華者, 或退去而不留, 或徵去而不就, 【有學術而退去者, 指李滉, 有文華而不就者, 指金麟厚.】皆不願立於朝. 自上更加省念焉. 且此書, 義理該博, 如《太極圖說》, 最難通曉. 使講官, 至前論難指畫, 則不無少補. 且祖宗朝, 以講官, 俯伏進講, 則言語有窒, 所懷難達, 故使之坐講. 雖或近於傲, 而亦所以通上下之情也.”¹⁰⁾

명종 10년(1555) 11월 7일 夜對에서는 참찬관 박민현이 이황을 특진관으로, 김인후를 경연관으로 참여시킬 것을 건의하였는데, 김인후에 대하여는 史官이 人品과 학문을 註記로써 評했고 끝에 다시 【史官曰】의 논평을 하였다.

참찬관 박민현(朴民獻)이 아뢰었다.

“경연관 중에 신과 같은 자는 글의 뜻을 모르니, 진강(進講)할 때 비록 성심(誠心)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바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유자(儒者)를 구하여 조석(朝夕)으로 그와 함께 강론(講論)하시면 도리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황(李

滉)은 고인(古人)의 글을 많이 읽고 학문에 힘쓰는 사람으로 몸에 병이 있어 산림(山林)을 좋아하고 세무(世務)에 오화하여 치생(治生)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올라오게 하더라도 머물면서 벼슬살이하기를 어렵게 여겨 곧 도로 퇴거(退居)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약 육조(六曹)의 참의(參議)로 삼는다면 진현(進見)할 기회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마음속의 회포를 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육조의 참의도 특진관으로 삼았었으니, 이런 사람을 특진관으로 삼아 경연에 으레 참여하게 하여 논사(論思)하게 한다면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후(金麟厚) 【김인후는 재행(才行)이 있고 영진(榮進)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김인후는 독서(讀書)하기를 좋아하였고 글을 잘 지었으며,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담담하였다. 만년(晩年)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좋아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여러 번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오직 독서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약 경연의 자리에 참석시킨다면 틀림없이 돕고 인도하는 공(功)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불렀으나 병이 많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으니, 억지로라도 올라오게 하면 비록 오랫동안 머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현하고 강론할 때에 어찌 보탬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신은 논한다. 유신(儒臣)으로 이황·김인후 같은 이가 있었으나, 발탁하여 등용해서 논사(論思)하는 위치에 두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시골로 퇴거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크게 잘못된 정사(政事)가 아니겠는가. 박민현이 참찬관이 되니 돕는 바가 많았

10)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1555) 5월 4일(정유).

으나 말은 채택되지 않고 몸도 중임(重任)에서 외무(外務)인 천문(天文)으로 체직되었으니, 오늘날의 정사가 어찌 그리 경증의 차례를 잃었는가?】

上御夜對。參贊官朴民獻曰：“經筵官如臣輩，不知書義，於進講之際，雖有誠心，而顧無所裨益也。須求儒者，朝夕與之講論，則可以知道理矣。李滉之爲人，多讀古人書，而力學者也。身有疾病，性癖山林，闕於世務，不能治生，故雖使上來，而留仕爲難，旋復退居。如此之人，若爲六曹參議，則無進見之時，安能展其胸懷乎？古者六曹參議，亦爲持進官。此人若爲特進官，例參於經席而論思，則裨益弘多矣。且金麟厚【有才行，不以榮進爲心。麟厚好讀書，善屬文，敝裘蔬食，淡如也。晚喜性理之學，研精覃思，屢徵不起。】之爲人，唯以讀書爲事。若參於經席，則必有輔導之功矣，以其多病，故屢召不就。強令上來，則雖不久留，其於進見講論之時，豈無裨益之事乎？”

【史臣曰：“有儒臣如李滉，金麟厚，而不爲擢用，以置論思之地，使之退居田野，豈非闕政之大者乎？民獻爲參贊官，多所裨益，而言不見採，身亦以天文外務，而遞此重任，今之爲政，何其失輕重之序耶。”】¹¹⁾

명종 15년(1560) 1월 16일에는 홍문관 교리 김인후의卒記가 실렸다.

전 홍문관 교리 김인후(金麟厚)가 졸(卒)하였다. 자(字)는 후지(厚之)요, 자호(自號)를 하서(河西)라고 했으며, 담재(湛齋)라고도 했는데, 장

성(長城) 사람이다. 타고난 자품이 청수(淸粹)했다. 5~6세 때에 문자(文字)를 이해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했고, 장성하여서는 시문을 지음에 청화하고 고묘(高妙)하여 당시에 비길 만한 사람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모만 바라보고도 이미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술과 시를 좋아했고, 마음이 관대하여 남들과 다투지 아니했으며 그가 뜻을 둔 바는 예의(禮義)와 법도를 실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감히 태만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3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고 부수찬(副修撰)으로 전직(轉職)되었다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外職)을 청하여 옥과 현감(玉果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의 국상(國喪)을 만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훼손(毀瘠)하여 을사년 겨울, 미침내 병으로 사직하고 사제(私第)로 돌아가 조정의 전후 제수에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사제에 거처하면서부터는 성현(聖賢)의 학문에 전념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사색하고 강구하며 차례대로 힘써서 실천하니, 만년에는 조예(造詣)가 더욱 정밀하고 깊었다. 《가례(家禮)》에 유념(留意)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더욱 삼갔으며, 시제(時祭)와 절사(節祀)를 당해서는 비록 앓는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했고, 시속의 금기(禁忌)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제를 가르칠 적에는 효제·충신을 먼저 하고 문예(文藝)를 뒤에 했으며, 남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기 의사를 표준으로 삼지 않았으나 한

11)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1555) 11월 7일(무술).

12)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1560) 1월 16일(임오).

번 스스로 정립(定立)한 것은 매우 확고하여 뽑아 낼 수 없었고 탁월해서 따를 수가 없었다. 해서와 초서를 잘 썼고 필적은 기골(奇崛)했다. 51세에 졸했다. 《하서집(河西集)》이 있어 세상에 전한다.

前弘文館校理金麟厚卒。字厚之，號河西，又號湛齋，長城人。天資清粹。五六歲時，默解文字，出語驚人，及長爲詩文，清華高妙，世罕其比。人望見其容貌，已知爲塵表之物也。愛酒耽詩，休休然與物無競，而其志意所存，實欲蹈禮義規矩，不敢自弛，而不知者，或疑其迂闊。年踰三十，始釋褐，爲弘文館正字，轉副修撰，爲親便養乞外，授玉果縣監。未幾遭中廟，仁廟之喪，傷毀不自持，乙巳冬，遂謝病歸私第，朝廷前後除拜，皆不就。自家食之後，一意聖賢之學，思繹講究，未嘗少間，循循用力，以踐其實，晚年所(請)(詢)，益精且深，留心《家禮》，尤謹喪祭，遇時節之祭，雖病必親，不撓於時俗禁忌。教子弟，先以孝悌忠信，而後文藝，與人酬酢，不事標飭，而至於其所自立者，確乎不可拔，卓乎不可企。善真草，筆跡奇崛。卒年五十一。有《河西集》，行于世。¹²⁾

新進氣銳로 촉망되는 엘리트인 史官들이河西 선생에 대하여 매년 評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나오지 않음에 대한 애석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하겠고, 어쨌든 6품직에 머물렀던 또는 발령만 받은 5품관에 대하여 史官들이 異例的·破格的인 好評을 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30대 후반 이후 40대 초반까지에 宦路에 비친 선생의 天品操身과 道學이 崇仰의 대상이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史官들이 표현한 선생의 天品操身은 清謹·虛粹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 學問은 詩文清華

高妙 性理之學 研精覃思' 라고 요약할 수 있겠으며, 더 구체적인 것은 그 같은 시대에 작성되었던 門人 양자징이 지은 家狀과 門人 조희문이 지은 文集序에 자세하다.

그리하여 선생의 道學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암 송시열의 신도비문, 그리고 정조 대왕의 賜祭文, 文廟從祀敎書에서 참된 빛을 보게 되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河西 선생 당시에 선생의 천품과 학문에 대하여 門人의 서술, 중종대와 명종대의 史官들의 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즉, 同時代 史官의 입을 통하여 當代 선생의 천품과 학문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異例的인 일은 비교적 자세한 卒記가 실록에 실렸다는 사실이다. 卒記는 정승·판서를 비롯한 堂上官으로서 특별한 功過가 있는 경우에 또는 賢人君子인 경우에 기술되며, 堂下官이라도 국가에 공이 큰 名賢의 자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리는 것이 관례이었으며, 더욱이 5품이나 6품인 參外官의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에 대한 卒記가 작성되었음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선생은 도학·문장·절의로서 賢人君子로 추앙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이 점은 이미 한영우 교수가 자세히 언급했다.)

본회 張源碩 이사

祝

당 선

광주향교 전교

필암서원 山仰會

河西 선생의 경연(經筵) 활동과 君主 敎育

안 동 교 (조선대 한국고전번역센터 선임연구 교수)

1. 머리말

인간을 ‘교육 필연적인 동물(animal educandum)’이라고 규정한 랑게벨트(M.J. Langeveld)는 “인간이 교육하고 교육 받고,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야말로 인간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인간은 ‘교육 필연적인 동물’이라는 교육학적인 명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왕조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지녔던 최고 통치자인 君主에게도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실시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이었는가, 그리고 그 교육은 어떤 목적과 의도하에 계획되었는가.

필자는 위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조선조 중기의 대표적 도학자요 정치가였던 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상소문(劄子와 箋)과 경연 기록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하서는 세 명의 군주(중종 · 인종 · 명종)의 치세(治世)에서 몇 종의 상소문을 남겼으며, 여러 해를 경연관으로

참여하여 군주 교육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서는 상소문을 통해서 당면한 정치 현안과 정책 비판, 그리고 정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군주의 사고와 행동을 경계하고 각성시키는 간접적인 교육을 수행했고, 경연에서는 군주와 대면하여 경전과 사서를 강의하는 직접적인 교육을 수행했다. 따라서 하서의 경연 활동에 나타난 군주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상소문과 경연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경연(經筵) 제도의 역사

군주 교육을 담당했던 ‘경연(經筵)’에 대해 명나라 학자 장자열이 찬한 『정자통(正子通)』은 “군주가 독서하고 강론하는 자리”(經筵, 王者講讀之處)라고 풀이했다. 이로 볼 때 경연의 본래적 의미는 군주가 신하와 더불어 경전과 사서를 읽고 난해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강론하던 교육 장소였던 것이다. 이 경연이라는 명칭이 처음 쓰여진 때는 송대(宋代)이지만, 군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훨씬 이전부터 실시되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고려조를 보면, 인종 10년(1132)에 경연에서 정향, 윤언이, 정지상 등이 경전을 강의한 기록으로 보아 이때에 이미 경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원나라의 침략으로 충목왕 때는 경연의 명칭이 서연(書筵)으로 격하되기도 했으나, 공양왕 2년에 서연을 경연으로 개칭하여 군주 교육의 기초를 다시 마련하고, 여러 학사들과 함께 『정관정요(貞觀政要)』와 『서경(書經)』을 중심으로 강론하여 성학에 힘썼다.

특히 공양왕 때 설치된 경연관 제도는 영사(領事) 2인, 지사(知事) 2인, 동지사(同知事) 2인, 참찬관(參贊官) 2인, 강독관(講讀官) 2인, 검토관(檢討官) 4인을 두고 사변(四番)으로 나누어 진강하도록 했는데, 이 제도는 조선조 경연관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조로 넘어와서는 태조 원년 7월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다시 정비하면서 경연이라는 독립된 관청을 두었으며, 세종 2년(1420)에는 경연청을 특설하여 관원의 정원을 늘였다.

성종 2년(1471)에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경연을 “왕의 강독과 논사의 일을 관장하는 곳”이라 하고, 정1품 영사(領事) 3명(의정이 겸직), 정2품 지사(知事) 3명, 중2품 동지사(同知事) 3명, 정3품 참찬관(參贊官) 7명(승지와 부제학이 겸직), 정4품 시강관(侍講官), 정6품 검토관(檢討官), 정7품 사경(司經), 정8품 설경(說經), 정9품 전경(典經)으로 홍문관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경연 교육은 군주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 덕성을 기르고 역대 정치의 치란과 사정(邪正)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어 유학이 꿈꾸던 이상적 도덕 정치를 실현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하였다. 그만큼 왕조 시대의 경연 제도는 군주 교육을 책임지고 군신간의 긴밀한 학문적·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제도였던 셈이다.

3. 河西의 경연(經筵) 활동

하서는 문과에 합격하여 출사하기 전에 모재 김안국, 놀재 박상, 면앙정 송순, 신재 최산두 등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수학했다. 모재는 하서에게 『소학(小學)』을 가르치면서 ‘군소우(君小友)’ 또는 ‘三代의 인물’이라고 칭찬했고, 놀재는 1515년에 『신씨복위소』를 과감히 피력하여 사림정신(士林精神)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하서는 그를 자신의 ‘중자기(鍾子期)’로 여겼다.

면앙정(놀재의 문인)은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죽은 사림들을 애도하는 시를 썼다가 곤욕을 치렀고, 기묘사화로 동북에 유배된 신재는 하서의 문장과 인품을 칭찬하여 ‘추수빙호(秋水氷壺)’라 불렀다.

이렇게 ‘학문적 연락망’을 살펴보면, 하서는 종종 반정 이후 훈구 세력의 전횡을 척결하여 도학적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 사림파를 추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서는 스승들과 폭넓은 교유를 통하여 단순히 문장의 기법을 익힌 것이 아니라, 도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그들의 정신과 학풍을 전수 받았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하서는 이들 사림파와 도학사상(道學思想)⁹⁾의 이론을 철저히 공유하고, 도덕 정치의 구현을 강하게 열망했다.

하서는 도학사상에 기초한 도덕 정치의 실현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

해 22세(1531년)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하여 퇴계 이황과 교유하면서 학문에 정진했다. 그 후 오랫동안 문과 급제와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31세(1540년) 겨울에 별시 문과에 합격하여 드디어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오랜 각고 끝에 정치에 참여하게 된 하서는 이때의 회포를 다음처럼 읊었다. “무지개빛 대궐에 피어오르니, 다른 날 임금의 치화를 도우리라.”²⁾ 이 시에는 군주를 보필하여 자신의 열망을 성취하려는 하서의 의자가 엿보인다.

훗날 참찬관(參贊官) 박민헌(朴民獻)이 명종에게 “김인후의 사람됨은 오직 독서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약 경연의 자리에 참석시킨다면 틀림없이 돕고 인도하는 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언한 것처럼, 하서는 해박한 학문과 탁월한 경륜으로 인해 경연관의 자질이 돋보였던 것 같다. 실제로 하서의 관직 경력을 뽑아보면 청환으로 알려진 홍문관(弘文館)의 직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경연관의 임무를 겸한 일이 많다.

① 홍문관정자 겸 경연전경(弘文館正字 兼 經筵典經) - 32세(중종 36년, 10월, 1541)

②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弘文館博士 兼 世子侍講院說書) - 34세(중종 38년, 4월,

1543)

③ 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 經筵檢討官) - 34세(중종 38년, 6월, 1543)

④ 홍문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弘文館校理 知製教 兼 經筵侍讀官) - 44세(명종 8년, 9월, 1553)

하서는 문과에 급제한 이듬해에 곧바로 경연관에 발탁되어 중종의 보도를 맡았고, 2년 뒤에는 성군의 역량을 펼치리라 예견했던 세자, 훗날 인종을 보도하는 서연관에 발탁되었다. 심지어 파당의 폐해와 인종의 승하로 인해 관직에서 용퇴한 시기에도 명종은 경연관을 제수하여 소명에 응할 것을 재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서의 경연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문집의 『조선실록초』는 하서가 중종에게 ‘광주목사 이충간이 구황(救荒)을 잘했음’(중종 37년 2월 석강)을 보고하여 선행을 표창하기를 빠뜨리지 않았고, ‘근래에 소인배 심정과 이항은 복직되고, 국가를 속이지 않은 조광조, 김식, 김정 등은 은혜를 입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숭상하던 『소학』과 『향약』에 관한 서적마저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함’

1) 도학(道學)이라는 용어는 『宋史』 권427, 『道學傳』에서 처음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學이라는 명칭은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夏·殷·周 시대가 융성할 때에 천자는 이 도로써 정치와 교육을 시행했고,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이 도로써 직분을 수행했다. 모든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이 도로써 강의하고 실습했으며, 온 백성들도 날마다 이 도를 활용했으나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따라서 천지 간에 존재하는 일개 백성 일개 사물도 이 도의 혜택을 입어서 자신의 본성(性)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보면 ‘도학’이라는 명칭은宋代에 비롯되었으며 “그 학문적 특징은 유교의 도를 새로운 역사적 현실에 다시 정립시키려는 신념이요 체계로서, 그 핵심은 人倫의 內面性의 본질을 극진하게 하는 것”(유승국 『東洋哲學研究』, 서울동방학술연구원, 1988, 244쪽)임을 알 수 있다.

2) 『河西全集』 권7, 詩 『無題』, 161쪽.

(중종 38년 7월 20일 조강)을 진언했으며, '기묘사화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반으로 논하지 말고 속히 복직해 줄 것' (중종 38년 7월 22일 조강)을 요청했다고 알려준다.

또 『연보』에는 '인종이 춘궁에서 덕을 기르는데 중종이 보도의 책임을 전적으로 선생에게 맡겼다. 인종은 선생의 학문과 도덕의 훌륭함을 깊이 알고 정성스런 마음과 공경하는 예로써 소대가 자주 있었으며, 선생도 역시 잠룡(潛龍)의 덕이 천고에 뛰어나서 훗날 당우(唐虞)(요순)의 치세를 기약할 수 있다고 여겨 지성으로 계도해서 정의가 날로 두터웠다. 선생이 입직해 있을 때는 춘궁이 간혹 몸소 나와서 조용히 문난(問難)하다가 밤이 이슬해서야 파했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조의 많은 학자·정치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서도 경연 교육에 커다란 기대와 신뢰를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서는 단종 이후 확립된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곧 삼시강(三時講)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사(經史)의 토론과 정치의 방도를 도모했다.

다시 말하면 하서는 경연을 군주와 직접 상면하여 도학 또는 성학의 요체를 들려주고 고금의 역사의 득실을 강론하는 좋은 교육 제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4. 하서의 군주 교육(君主教育)

하서의 군주 교육의 논지는 '어떻게 군주를 성군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도덕 정치, 즉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의 이상 정치론을 그 표본으로

하고 있다. 공자의 인정(仁政)이란 군주가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으며, 맹자의 왕도정치도 군주가 덕으로써 인의(仁義)를 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군주의 수기(修己)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정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하서에게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군주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다.

현실적으로 군주는 한 국가의 근본이 되는 존재로서 그 국가의 치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만큼 왕조 시대에는 모든 정치 행위가 군주에게서 시작되고 군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수기안백성(修己安百姓, 치인)이라는 정치 주체의 역할 역시 기본적으로 군주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왕조 시대의 신하는 단순히 군주에게 충성을 강요 당하는 피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교육받은 신하는 정치 참여를 통해 백성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탁월한 재능을 발전시킬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서 역시 통치 주체이며 핵심인 군주를 성학으로 도덕화함으로써 유교 정치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덕 정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군주를 성군으로 만드는 군주 교육은 하서의 절실한 교육적 이념이었다.

먼저 군주의 학문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서의 견해를 살펴볼려 한다.

하서는 경연 검토관의 직책으로 중종에게 올린 『차자(箴子)』에서 '은갖 일이 번다하지만 한 마음(一心)이 주재할 수 있고, 군주의 이 한 마음에서 교화와 기강이 나오고 서게 되는 것'³⁾이라고 보아 다양한 정치 현안들을 규율할 수

있는 주체가 마음임을 밝혔다.

따라서 하서는 “때마다 경계하고 삼가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쳐서 항상 비고 신령하고 명백하고 투철하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청수한 기(氣)로 구성된 이 마음은 본체의 측면에서는 허령(虛靈)하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지각을 띠므로 내적으로는 본성의 보존과 외적으로는 정의(情意)의 운용을 담당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음은 통철하고 허령하여 천리(天理)를 온전히 갖추고 있지만, 형체 속에 갇히면 인욕(人欲)의 사사로움이 생겨나고, 이 천리와 인욕 두 가지는 번갈아 소장하면서 한 몸의 시비·득실과 국가의 치란·안위를 파생시킨다. 하서는 이를 “비록 마음의 본체(體)가 거울처럼 비고 저울처럼 공평할지라도 사의(私意)에 가리게 되어 결국 막힘 없이 유행하는 광명정대한 작용(用)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단언했다.

하서는 이처럼 체용이 껴전하지 못하게 되면 ‘정과 뜻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안과 밖이 서로 관계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해지며 모든 일이 절도가 없고 풍속이 날로 야박해진다’고 보았다.

천리가 강하게 표출되어 인욕을 막을 때는 인간의 행위는 항상 옳음과 얻음의 결과를 낳고 국가의 정치는 다스림과 안정을 얻게 되는데 반해 인욕이 치열하여 천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름과 잃음, 어지러움과 위태로운 결과를 낳게 됨을 군주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하서는 구체적 현실속에서 수양론의 실천적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

하서는 다시 중종에게 “군주의 위(位)에서 있을 때나 방 안에 있을 때나 뜻이 성실하고 마음이 정직하려면 기질(氣質)을 함양하고 덕성(德性)을 도야하는 공부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유흥과 호색을 탐닉하다 사사로움에 가리고 치우침에 얽매어 이를 스스로 극복(自克)하지 못하게 되면, 총명과 예지의 자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서는 군주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음은 기질의 영명한 결정체로써 마음의 수행은 꼭 탁박한 기질을 청순하게 닦아 그 정통(正通)함을 회복함으로써 도덕성을 개방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방심의 마음은 자칫 자신을 편색한 상태에 빠뜨려서 도덕성을 질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수양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심(私心)을 다스리고 정심(正心)을 키워 올곧은 나로 닦아나갈 것을 표방한 치심수기(治心修己)는 하서의 군주의 학문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하서는 군주는 정치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을까. 하서가 군주 자신의 치심수기(治心修己)를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 정치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 즉 현실 정치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3) 『河西全集』 권11, 筋, 『弘文館筋子』, 218쪽.

있다.

군주가 이기심과 사의에 지배 받기 쉬운 자기를 수양·극복함으로써 도덕적 충족감을 느끼고 주체성을 확립하여 현실 정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결국 백성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하서도 다른 도학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요순(堯舜) 시대와 같은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염원했다. 하서가 꿈꾸었던 요순(堯舜)은 유가에서 인격의 표준이요 정치의 원형으로 설정된 고대의 성군(聖君)이다. 다시 말해 요순은 도덕성에 어긋나지 않는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인 동시에 위정자로서 천리 구현의 본보기로 상정된다. 중종조의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정암(靜庵)의 '융고정치(隆古政治)'도 요순적 성군 정치의 회복을 뜻한다는 점에서 두 도학자의 목표는 일치한다.

그러나 하서가 고대 요순 사회의 재현을 겨냥했다고 해서 이를 복고적·퇴역적인 치세, 철학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순 시대는 시간적 질서 속에서는 과거 속에 놓여있지만, 본질적 차원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반드시 구현해야 할 유학적 이상(理想)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하서는 정치에 능한 군주는 어진 인재를 친근히 하고【親賢才】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正士習】 것이 근본이라 하고, '어진 인재를 친근히 한 뒤에 보필을 전담케하여 교화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교화의 시행은 또 반드시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만 인륜을 밝히고 풍속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본다.

또 하서는 "전하께서는 아직도 간사한 자들이 어진 이를 포함하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여 뉘우

치지 못하고, 조야의 사람들은 기묘(己卯)의 원왕(冤枉)을 민망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이제껏 본 마음을 개진하여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하서는 어진 이를 군자로, 간사한 자를 소인으로 극명하게 대비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려는 관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자의 논의 속에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땅을 탐내고, 또 군자는 예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만 소인은 항상 정실에 의한 특혜만을 생각한다." (『논어』 「이인(里仁)」 편)

공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의 영역을 구분하여 군자가 하늘이 부여한 선한 이치를 체득하여 지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생각한다면, 소인은 무한한 욕심에 몸을 맡겨 이치에 벗어난 행동을 자행하고, 또한 군자는 예법을 경외하여 자신을 보존할 줄 알지만, 소인은 오직 이익과 특혜만을 넘보느라 정의를 상실하고 자신을 해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이 지향하는 세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군주는 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인재를 구하여 정사를 맡기게 되므로 어진 인재를 얻는다는 것은 정치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관료로 선발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육을 탐하는 간사한 자와 의리를 실천하는 어진 이를 준엄하게 구별해야 하고, 어진 이를 친근히 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 규범이 되는 것이다.

하서는 "세종·성종의 고명한 학문은 조용히도(道)에 적중하여 생각하고 힘을 쓸 것이 없었으

니 마땅히 외부에 의존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급급히 서둘러 장려하고 배양하여 시종 이 여일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여 군주가 어진 이와 간소한 자를 변별하여 어진 이에게 정치를 맡기고 간소한 자를 엄격히 배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선비를 정치와 교화 기능의 주체적 담당자로 제도화하려는 사림 정치의 형식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선비의 기풍을 배양하고 정사(正士)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선비의 바른 정신을 정치와 교화의 원천으로 확립하려는 사림 정치의 실질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서는 왕조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던 군주도 교육의 필연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그는 군주를 교육 필연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육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성학(聖學)으로 철저하게 도덕화함으로써 유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해 왔던 이상적인 도덕정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도록 교육했다.

그는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의 진실된 자아를 확보하고, 이기심과 사의에 지배 받는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를 군주의 선결 과제라고 교육했으며, 군주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선악·시비의 분별력을 확장시켜 현실 정치의 다양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이끌었다.

하서는 군주의 학문은 정치의 바탕이 되며 정

치는 학문의 운용일 뿐이라고 보았다. 군주는 학문을 통해 도덕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서 행동의 규칙이나 원리들을 가다듬어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다.

하서는 도덕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능숙한 권모술수를 사용하기보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정치 행위를 생각해야 하며, 물리적인 힘보다는 객관적인 도덕률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힘에 의한 정치’에서 ‘도덕에 의한 정치’로 전환하려면 군주도 성인의 학문을 부단히 학습해야만 하며, 군주라 할지라도 정치를 전단(專斷)하는 것이 아니라, 어진 인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겸손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책소개

사랑하지 말자

한민족의 하늘을 뒤흔든 섬광!



도올 김용옥

청춘 · 역사
조국 · 대선
우주 · 천지
종교 · 사랑
음식

통나무

홍문관(弘文館) 차자(笥子)

하서 선생은 중종 38년(계묘) 7월 20일 아침 경연과 7월 22일 낮 경연에서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의 신원을 목숨을 걸고 소청하였다.

하서 김인후

엮드려 뵈은 바 전하께오서는 학문에 마음을 두시고 어진 이를 좋아하시고 선(善)을 즐기시며 소의간식(宵衣旰食)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림을 꾀하신 적이 삼십여 년이오니 거의 아름다운 징조가 모두 응하고 좋은 상서가 담 쌓여올 것이라 생각되옵는데 조정의 화와 인륜의 변과 재앙의 발작이 오늘보다 더한 적은 있지 않았사옵나이다.

근년 이래로 삼신(三辰:日月星)이 흉(凶)을 알리고 서리 우뢰가 때를 잃고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고 질병조차 간간 발생하여 민생은 날로 줄어들고 국가는 피폐한 데 더더구나 일식(日蝕)의 변이 바로 삼조(三朝)에 나타나고 동궁(東宮)의 화재가 거의 하늘을 후끈거렸으며 열흘 이내에 재액(災厄)이 연접하여 나타났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느 님들 한심되지 않으오리까.

신들은 듣자온 바 사람의 일이 아래서 느끼게 하면 하늘의 도(道)는 위에서 응한다 하였사온데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전하께오서 이 일을 당하시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아마도 전하께오서 호학낙선(好學樂善)의 실상이 위와 아래를 진실하게 못하시며 궁행심득

(躬行心得)의 묘오(妙悟)가 혹시라도 미진한 바 있어, 잠깐의 사이에 가끔 간단이 생기고, 섬개(纖芥)의 미세(微細)에 성찰(省察)을 놓게 되어 몸과 마음, 안과 밖이 능히 여일하지 못함으로 써 일신(日新)의 공(功)이 도리어 일퇴(日退)의 지경에 돌아간 것이오며 무릇 일에 있어서도 비록 하늘에 순응하는 글월과 백성을 근념(勤念)하는 말씀과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이름은 있지만 성의의 축적이 반드시 후하지 못하면 재변이 생기는 것이 또한 그런 원인이 아니었다고는 전연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온 나라가 넓다지만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온갖 일이 번다하지만 한 마음이 주재(主宰)할 수 있사온즉 임금의 한 마음에서 교화(教化)와 기강(紀綱)이 나오고 서게 되는 것이오니 진실로 때마다 경계와 삼가를 더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쳐서 항상 비고 신령하고 명백하고 투철하게 함으로써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통하게 하지 못한다면 비록 본체(本體)가 거울같이 비고 저울대처럼 공평하다 할지라도 자못 사의(私意)에 가리게 되어 마침내 막힘 없이 유행(流行)하는 광명정대의 용(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막(膜)의 밖은 문득 호월(胡越)이 되어 정과 뜻이 서로 통하지 못하며 안과 밖이 서로 관섭(管攝)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모든 일이 절도가 없고 풍속이 날로 야박하며 그 혹 사위(事爲)의 말(末)에 애를 쏟고 방금(防禁)의 즈음에 급급하지만 법에 따라 폐단이 생기고 성(誠)이 아니면 물(物)이 없는지라 역시 한때의 부득이한 조처에 불과할 뿐이오며 지속되고 오래 갈 수 있는 도(道)는 아니옵니다.

전하께옵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당조(堂陴)의 위에서나 방 아랫목 속에서도 뜻이 과연 다 성실하고 마음이 과연 다 바르다 여기시옵니까. 그 기질을 함양(涵養)하고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하는 것은 대개 몇 날이 없는데 혹은 연일(宴昵)의 사정에 가리고 은애(恩愛)의 치우침에 얽매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다면 전하께옵서 비록 총명예지(聰明睿知)의 자질을 지니셨다 할 지라도 역시 침지(浸漬)되고 편파(偏頗)되어 달로 달라지고 해로 틀려져 오는 근심이 어찌 없겠사옵니까.

이 때문에 예로부터 잘 다스리는 임금은 누구나 다 어진 인재를 친근히 하고 선비 풍습을 바로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오니 대개 어진 인재를 친근히 한 연후에야 보익(輔翼)을 전위(專委)하여 교화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교화의 시행 같은 것은 또 반드시 선비 풍습을 바로잡는 것에서 비롯되어야만 이륜(彝倫)을 밝히고 풍속을 도탑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를 선무로 삼지 아니하고서 기필 혼자 결단하며 치우친 처사로 나간다면 비단 형세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오라 출처(出治)의 근원도 어찌 능히 맑음을 보장하오리까.

더구나 바른 사람이 없으면 능히 간사(姦邪)를 분별하지 못하고 곧은 말이 아니면 과실을 들을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항상 우용(優容)하고 장려하여 그 기절을 배양한 연후라야 강상을 유지하고 왕실을 호위하여 반석불발(盤石不拔)의 형세를 굳히게 되며 혹시 만에 하나 생각지 않은 변이 생길 경우 반드시 붙잡고 매달리어 넘어지거나 위태로움이 없게 하며 목숨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그옥이 듣자온 바 세종, 성종께옵서 이를 장려하고 이를 배양하여 극진히 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취된 사람들은 대개 다 세상에 이름난 인재요 우뚝 솟은 선비로서 능히 생(生)을 달관하고 목숨을 버리어 대절(大節)에 다다라도 뜻을 변하지 않고 칼날을 무릅써도 더욱 열렬하여 이제껏 생기가 늠름하게 살아 있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옵서 즉위하신 처음에 전거(前車)의 옳어짐을 거울 삼고 대업(大業)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와 어진 이 구하기를 목마른 듯이 하시고 선(善)을 따르되 거슬림이 없으시므로 선비들 역시 즐거이 용(用)이 되어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을 기약하며 내심에 「이와 같은 임금을 만났은즉 옛날 제왕의 정치를 기필 이루고야 말겠다.」는 생각 아래 예전 시대를 인거하여 실지로 누적된 폐단을 통렬히 개혁하고 시속의 수다쫓은 돌아보지 않으며 분연히 일어서서 장차 큰 일을 해보려고 하였으니 진실로 사심이란 일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뜻을 같이한 선비들의 학식이 천심 후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혹 속성하려는 생각을 갖는 반면에 자못 함홍(含弘)하는 도량이 적었으며 점진의 의(義)를 상실하고 급격한 근

심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 시기하는 자들이 마구 발작하여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기틀을 만들었으며 전하의 마음도 정(精)하기는 처음 살필 적만 못하고 일(一)하기는 처음 지킬 때만 못함과 동시에 궁장(矜莊)한 모습과 귀에 거슬리는 언론은 점점 보기에 꺾고롭고 듣기에 싫어지는 것이오라 이에 간사한 소인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그 기(機)를 발동하게 되니 평소에 기약했던 요순군민(堯舜君民)의 뜻은 백에 한두 가지도 실현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정의 이름을 받으며 불칙의 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천총(天聰)을 현혹시키고 성명(聖明)을 기폐(欺蔽)하며 선류(善類)를 무함한 것이 아무리 심하단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로부터 이후로는 윗사람도 성의로써 아랫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아랫사람도 성의로써 윗사람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며 몸을 허락하여 스스로 담임하려는 뜻이 없고 모두 불안한 마음만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관수(官守)하는 자는 과감히 그 직을 다하지 못하고 언책(言責)을 가진 자도 그 말을 다하지 못하며 유유범범(悠悠泛泛)하여 구차스레 성명(性命)만 보전할 따름입니다.

이 버릇이 날로 자라나서 투박(偷薄) 태타(怠惰)가 풍기를 이루었으므로 책난(責難), 진선(陳善)의 충언은 면전에 올려지는 날이 없어 위에서는 총명을 넓힐 수 없고 아래서는 사정(邪正)을 분별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권간(權奸)이 가름해 일어나서 갈수록 더욱 치성하여 흉계를 자행하여 전혀 기탄이 없는데도 온 조정이 입을 다물고 앉아서 구경만 하며 구출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종묘사직의 권우(眷佑)와 전하의 위령을 힘입어, 죄가 극에 달한 자들은 각기 백일하에 처형을 당하였으니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일을 생각할 때 어찌 아슬아슬하지 않으오리까. 삼흉(三凶)의 말기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는데도 오히려 두려워서 움츠리고 꺼리다가 겨우 없었거니와 그 한창 치성할 때에는 말로 대항하여 화를 저촉한 자는 두세 명 광견(狂狷)의 선비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라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 이르오리까.

전(傳)에 이르기를 「어질고 착한 이를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공허하다(不信仁賢 則國空虛).」 하였으니 이 때를 당하여 가사 급한 일이 생긴다면 전하께오서 장차 무엇을 믿고서 편안하시려 하시나이까.

전하께오서 상기도 간사한 자들의 어진 이 무함한 정상을 깨닫지 못하시와 쾌히 뉘우침을 열어 보이지 않으시므로 조야의 사림들이 기묘의 원왕(冤枉)을 민망히 여기지 않는 자 없으면서도 이제껏 본마음을 개진(開陳)하여 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사되어 위로 전하에 의의(疑貳)의 일념을 풀어드리고 아래로 지하의 감감한 충분(忠憤)을 씻어 주지 못하니 사기(士氣)가 퇴폐하고 타락된 것은 역시 이에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세종 성종의 고명하신 학문은 실로 생지(生知)를 말미암아 조용히 도(道)에 적중하여 생각하고 힘쓸 것이 없었으니 마땅히 외부에 의존할 일이 없을 것 같사오나 오히려 급급히 서둘러 장려하고 배양하여 시종이 여일함으로써 인재를 작성하는 아름다움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들을 풀 베듯이 베어버린 참화가 후일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오히려 애석히 여기

옵는데 하물며 몸소 전하의 배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전하의 시대에 화를 받고도 천일(天日)의 조림(照臨)을 만나지 못한 적이 우금 이십여 년 이오니 어찌 심각한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신 등은 일찍이 보온 바 소학(小學)의 글은 본시 성현이 교(敎)를 만들어 낸 유의(遺意)로서 무릇 입심(立心), 행기(行己), 처사(處事), 접물(接物)하는 준칙이 모두 이에 들어있으니 실로 계왕개래(繼往開來)의 요전(要典)인 동시 정학(正學)의 계제(階梯)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와서는 이것이 기묘년 화를 가져온 본말이라 하여 도리어 서로 헐뜯으며 하나라도 단언정색(端言正色)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뜻 소학의 무리라 배척하니 사습(士習)이 바르지 못함이 유래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리 고서 인륜의 밝음과 풍속의 후함을 바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사옵니까.

선비 된 자가 인륜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관직에 있는 자가 교화(敎化)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학(學)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구하며 마음은 찾지 아니하고 일만 찾으니 군자로도 오히려 이러할진대 소인이 어찌 보고 느끼어 흥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경기 근방 주군(州郡)의 사이에는 궁흉극역(窮兇極逆)의 귀로 차마 듣지 못하고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할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니 성명(聖明)의 시대에 있어 이와 같은 비상의 변이 있으리라고 누가 이르겠습니까.

무릇 삼강(三綱)이란 국가의 동량이온데 들보가 꺾이고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어찌 오래 지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위에서는 편안하고 아래서는 즐거워하며 모두 이미 다스려졌고 이미

안정되었다 여기며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서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치세(治世)의 상(象)이라 하오리까. 신 등의 사우과계(私憂過計)로는 장차 토붕(土崩)의 근심이 조석에 일어날까 걱정이온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정사로써 인도하고 형으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이 면하기는 하되 부끄럼이 없어지고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부끄럼이 있고 또 감복한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하였으니 전하께오서 이미 이와 같은 실덕(實德)을 안에 지니셨은즉 이로써 백성을 감화하는 근본을 삼으시고 본연의 권도(權度)로써 품절(品節)하여 구규준승(矩規準繩)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다면 저 「그물이 벼리가 있어야 조리가 있어 어지럽지 않다(약강재강 유조이불문(若網在綱 有條而不紊)).」와 같아서 조정의 온갖 관원들이 감히 정(正)에 모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백성들도 부지 중에 날로 선(善)에 옮겨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버리고 힘쓰지 않으며 한갓 그 말(末)만 믿는다면 비록 형살(刑殺)이 날로 베풀어지고 정령(政令)을 자꾸자꾸 변경해 보았댔자 죄를 면하게 하기에 오히려 불가능하온데 더더구나 선(善)에 옮겨지길 바랄 수 있사오리까.

이런 까닭에 오늘 한 호(號)를 발하고 명일 한 영을 내지만 영을 냈다 해서 반드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요 금한다 해서 반드시 그쳐지는 것이 아니며 시행되지 않으면 도리어 저지되고 그쳐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서 구차와 인순(因循)으로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뀌어도 실효를 보지 못한 적이 대개 오래였습니다.

우선 근일의 일로만 보더라도 궁곤(宮閫)의 안에 대해 관방(關防)이 엄밀하고 수비가 철저한 것은 반드시 통섭(統攝)하는 바 있어서 이온데 뿔뿔 타는 불길이 이미 치열해진 다음에야 발각되었으며 끝내는 모든 왕래하는 사람에게 핑계하고 있으니 신 등은 자상히 알지 못하는 바이오나 관방의 느낌과 수비의 소홀에 관하여는 신 등도 당초 이를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온갖 관료들이 허둥지둥하고 예졸(隸卒)들이 전지도지하여 단지 소요스럽기만 하였고 선뜻 불길을 잡지 못했으니 어찌 평시에 관할을 잘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일찍이 밝히지 못해서 이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비록 사람의 일이 미쳐 주선이 못 되어 그런 것이오나 역시 하느님의 견책(譴責)임을 깊이 엿볼 수 있겠거늘 아직도 전하의 측석(側席)하여 수정(修身)하는 실상과 허물을 인책하고 말을 구하는 명(命)을 보지 못했으며 다만 번거롭게 편오(編伍)를 점검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수색하기에만 급급하니 정문(正門)이 대낮에 닫혀 있어 첩시(瞻視)에도 해괴하려니와 넓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진실로 군율(軍律)이 본래 밝고 문금(門禁)이 본래 엄숙했다면 소소한 사곡(邪曲)은 저절로 용납할 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청단(聽斷)의 나머지 허심탄회하시와 몸에 돌이켜 살피고 일에 따라 체험하며 강학(講學)의 사이에 기미를 연구하고 조존(操存)의 때에 치곡(致曲)을 다하며 재앙을 이룬 근원을 깊이 생각하여 통절히 스스로 각책(刻責)하고 오직 날로 척려(惕厲)하여 학은 반드시 성(聖)에 이르러 간 뒤에 말며 다스

림은 반드시 전고에 미쳐 간 뒤에 그치되 요는 본원(本源)이 맑고 안팎이 다 실하게 하여 그 하늘을 움직이는 정성과 그 물(物)에 접하는 마음을 극진히 하여 일호라도 사위(私僞)가 끼임이 없게 한다면 사와 정을 분별하기 어렵지 않고, 옳고 그름도 정해진 바 있어 이미 흐려진 사습(士習)도 일어나고 이미 해이한 기강(紀綱)도 떨칠 수 있사오며 교화의 능이(陵夷)와 풍속의 퇴패는 족히 근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천연하고 고식(姑息)하여 해이와 타락에 주저앉아 스스로 강력하지 못하고 한갓 허문(虛文)만 일삼으며 그 실덕(實德)을 힘쓰지 않거나 말절(末節)만 다스리고 그 본원을 밝히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천견(天譴)에 보답하며 어떻게 인사를 바로잡으며 어떻게 위태로움을 돌리어 편안하게 하며 어떻게 화를 돌리어 복으로 만드오리까. 정사의 실책도 개혁하고자 해도 개혁할 수 없게 되며 사람을 잘못 쓴 것도 버리고자 해도 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결(缺)

(본문과 각주는 생략함)

책소개

천天 작爵

하늘이 내린 영원한 벼슬

김기현 지음

선비의 삶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 삶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고전 탐사기

서해문집

2012년 정기총회 30차 학술강연 원고

河西 思想의 現代史的 再照明

鄭煥 淡 (유교대학장, 본회 이사)

1. 들어가는 말

조선조의 文廟에 배향된 東方 18현 가운데 道學, 節義, 文章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또한 치우침이 없어 正祖大王으로부터 東方의 周子요 湖南의 洙泗라고 추앙을 받아온 河西 선생의 誕辰 500주년을 맞이하여 성대한 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

大學을 퇴임하고 유학에 입문한 후로 어려서부터 어른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왔던 河西 선생에 관하여 배우고자 筆巖書院의 山仰會에 참여하면서 中國의 儒學과는 별도로 조선 道學의 맥이 면연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호한(浩瀚)한 문헌과 업적들을 섭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학문적 기초가 천박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큰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또한 500여년 전의 河西의 思想이 오늘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의문도 생겼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필암서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영산 박병호(朴秉濤) 선생의 인사말씀 중에 하서 사상에 대한 현대 사회의 횡적(橫的) 발전의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

는 것을 듣고 그 순간 본인에게 미흡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河西 思想의 現代史的 再照明의 방향이 섬광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 생각을 山仰會의 몇 분께 말씀드린 바 있었다.

2. 英學塾의 再發見

금년 5월 8일(화)에 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 탄신 122주년을 맞이하여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리는 古下선생 추모식에 古下의 宗孫이신 宋相現 先生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상경하여 추도식의 자료 문건을 보았다. 그 분의 약력에서 그가 17세 되던 해(1906년)에 신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담양 창평(昌平)의 영학숙(英學塾)에서 그의 평생 동지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를 만나게 된 사실을 보았다.

그 후로 창평의 英學塾과 창흥의숙(昌興義塾)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학숙은 조선조 말기 고종(高宗)의 조정에서 비서원랑(秘書院郎), 비서관랑(秘書監郎) 겸 홍문관대독(弘文館對讀),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겸 의친왕의 사부인 황자전독(皇子典讀) 등의 관직을 맡았던 춘강(春崗) 고정주(高鼎柱, 1863~

1933)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 창평에 내려온 춘강은 그 사위인 김성수(金性洙)와 그 친구의 자제인 송진우(宋鎭禹)를 중심으로 1906년 봄에 월정(月亭)을 수리하여 학당을 열고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조선 귀화인인 이표를 모시고 숙장(塾長) 선생으로 삼아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영어의 「英」字를 첫 머리로 이름을 英學塾이라 부르게 했다.

춘강의 배려로 개설된 호남 최초의 신학당인 영학숙은 상월정을 중심으로 하였고, 첫기생은 김성수, 송진우, 백관수, 현준호, 김시중, 고광준으로 1년여 진행되다가 새로운 학숙인 용주관(龍珠館)으로 이설하였고 1908년 봄에 창흥학숙(昌興學塾)으로 단장하여 교육을 확대하여 나아갔다. 영학숙은 김병로, 이병목, 이병욱, 고광일, 한익수, 이승기, 이한기 등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영학숙과 창흥학숙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은 그 후에 신학문을 배우려고 동경 유학을 가게 되었고 주로 와세다(早稻田), 메이지(明治), 일본 대학 등에 진학하여 민국의 광복과 건국에 큰 공로가 있는 인재가 많았고 또는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과 독립 운동으로 또는 일선의 교육자로 봉직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영학숙과 창흥학숙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영학숙과 창흥의숙의 중심 인물은 영학숙을 창설한 춘강 고정주(高鼎柱)와 그의 사위이며 제1기생의 대표격인 인촌 김성수와 춘강의 친구 송훈(宋薰)의 아들인 제1기생 송진우(宋鎭禹)를 들 수 있다. 인촌 김성수는 하서 선생의 후손이며 송진우는 면앙(旹仰) 송순(宋純)선생의 직손이다.

이들은 모두가 하서가 중앙에서 활동하던 때부터 누대의 세교를 누려온 사람의 후예들이다.

3. 호남학회의 창립

영학숙과 창흥학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근대화 과정 속의 양면을 유념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영학숙, 창흥의숙을 창설한 춘강 고정주는 다시 상경하여 동지들을 결속하여 호남학회를 발기한다.(1907.7.6.)

을사보호조약이 1905.11.17 체결되고 나서 일제의 식민지 작업이 착착 진행되는 상황 아래서 우리 민족의 국권 회복 운동은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의 두 개 방향이 있다.

의병 운동은 전통적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무력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유생층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특히 1907년의 고종의 강제 퇴위와 조선 군대의 해산을 계기로 하여 의병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끝내는 호남 의병이 소탕됨으로써 사회의 중심이 될 유교 인력마저 소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력적 저항만으로는 국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진 신지식층들은 교육 구국 운동의 방향으로 재조정하여 신교육 구국 운동, 언론 계몽 운동, 민족 산업 진흥 운동, 국채 보상 운동, 신문화·신문학 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애국 계몽 운동은 지식인, 관료 등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산업 진흥, 신문 잡지의 발간 등을 통한 경제적·문화적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1907년에 결성된 호남학회도 이러한 교육 구

국 운동 단체중의 하나였다.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6일에 호남학회 발기인 112명이 출석하여 대동문회관에서 7인의 발기인의 명의로 소집되었던바 그들은 강엽, 백인기, 고정주, 윤계중, 이란, 박영철, 최우락 등이 있다.

호남의 교육 발달을 목적으로 창립 목적을 표방하고 「호남학회 월보」라는 회지를 발행하여 경성과 도내 각 지방에 학교 설립 활동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창립 당시에 회원수가 370명이 있는데 전북이 222명 전남이 148명이었다고 한다.

호남학회는 상당수의 관직 경험자들이 참가하였는데 갑오개혁 이후의 신학문을 배운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구학문 수학자에 비하여 훨씬 적었던 것 같다.

호남학회는 매호마다 60면 정도의 학보를 제작하여 왔는데 그 중에 교육판계변론부, 각학은령부, 수사규풍부(隨事規諷部), 인명언행부(人名言行部), 본회기사부와 회원씨명부 등을 규칙적으로 게재하고 한일합방 전까지 발행하여 왔다. 재정력이 부족하여 1909년 이후로 간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호남학회는 갑오개혁 이후 종래의 지식층에 의한 신학문의 수용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신구학문 간의 논쟁을 통한 사회 계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양계초(梁啓超)의 이론이 많이 소개된 것이 특색있는 일이었다.

호남학회의 신교육 운동은 1906년에 「소학교령」을 「보통학교령」으로 개정 공포하게 하였고, 「보통학교법」 공포 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보통학교, 목포보통학교, 나주보통학교, 영암보통학교 4개교가 설립되었다.

호남학회 운동은 한민족 교육에 관한 반성과

개혁 변화의 적응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영학숙(英學塾) 출신의 대두와 활동

다음으로 영학숙과 창흥의숙의 이후로 창흥의숙의 전개 과정은 다차원적으로 하서적(河西的) 사상의 흐름에 확대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로 영학숙과 창흥의숙을 통하여 배출한 걸출한 인물로는 인촌 김성수, 고하 송진우, 근촌 백관수, 가인 김병로, 무송 현준호를 들 수 있다.

인촌 김성수는 영학숙에서 배운 영어, 수학의 서양 신학문의 기초를 통하여 일본 와세다 대학을 1914년에 졸업하고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1917년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9년대 경성방직회사를 창설하여 민족 자본 육성의 모범을 보이면서 1920년에 동아일보도 창간하였다.

1932년에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이 되었고, 고려대학의 기초로 삼았다.

그 동안 인촌은 고하 송진우와 현상윤과 협의하여 중앙학교 숙직실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계획하여 48명의 비밀조직으로 3·1 독립 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로 투옥되어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의 간부를 지내고 1946년에 한국민주당을 창당 주도하였고, 독립축성회의 부회장이 되었다. 1951년 부통령이 되었다가 사임하였다.

고하 송진우는 광복 전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 민족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다. 영학숙을 거쳐서 영어, 수학 등의 신학문을 수학하고, 1915년의 메이지 대학에 입학하여 마치고 나서 귀국

하여 인촌과 필생 동지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함께 하였다.

1915년에 중앙학교 교장을 맡고 동아일보 사장, 주필을 맡으면서 김성수, 현상윤과 함께 3.1 독립 운동의 계획을 세우고, 48명의 동지로 3.1 독립 선언을 수행하였고,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민족 계몽 운동과 국민의식 고양 운동에 주력하였으며, 광복 후 한민당을 결성하고 한국 정부 수립에 전력하다가 반민주 세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근촌 백관수는 전북 고창 출신이었다. 1916년 영학숙에 입문하여 영미 등의 신학문의 기초를 다지고 1915년 경성 법학 전문을 마치고 YMCA 간사, 중앙학교 교원이 되었다. 명치대학 법학과에 입학, 1919년 동경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어서 2·8 독립 선언을 주도하고 1년 간 복역하였다.

1927년 하와이 세계기독교청년연합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 1937년 동아일보 사장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후 한국민주당 총무, 미군정하의 입법의원, 제헌국회의원을 지냈으나 6·25 동란에 납북되었다.

가인 김병로(1888~1964)는 어려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면암 최익현의 의병에 가담한 바 있다. 1909년에 창흥의숙에 입문하였고 일본대학의 법과를 청강 후 1912년 메이지대학에 편입, 1915년 일본대학 및 메이지대학을 졸업했다. 1915년 경성전문학교에서 조교수로 발령 받고 1920년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송진우, 백관수 등과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에 선임, 한국 사법의 기초를 세웠다.

무송 현준호는 영학숙을 마치고 와세다를 거쳐서 호남에 돌아와서 호남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을 1920년 5월에 창설하였다. 그리고 민립대학의 창설에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창흥의숙에서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영학숙과 창흥의숙은 일제하에 한국 굴지의 사립 교육기관이 된 셈이다.

5.광주고보 창학 발의

1919년 3·1 독립 선언이 있는 후에 광주 주위에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때에 1919년 가을에 창평 현감을 지냈던 김형옥(金衡玉)의 발의로 광주의 유지 50인이 연맹으로 서명하여 광주에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창설할 것을 추진하였다.

일제 하의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1920년 5월 1일에 광주읍의 영빈관인 광산관에 임시로 교사를 정하고 학교를 개설하여 50명 2반을 창설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일제의 학무국과 타협하여 조선어와 조선사의 교사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2년 후에 지금의 일고 자리인 누문동 공동묘지 거리에다가 학교를 이설하고 공립학교로 개칭하고 일본인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였다.

그러므로 광주고보에는 창흥의숙적인 교육의 정신이 계승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민족혼은 광주고보 개교 10년째인 1929년 11월 3일(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었음)일제의 명치 탄신일(明治節)에 일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학생독립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곳이다.

이러한 1929월 11월 3일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은 한국 학생들의 민족 독립 정신과 나아가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서의 4·19운동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적 사회 정의 운동의 계기로서 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河西 思想의 現代의 再照明의 課題

河西의 思想은 그의 道學的 성과나 업적뿐 아니라 河西 당대의 시대적 민족적 요구에 河西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온 그의 특출한 지도 역량의 성과인 점에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그가 종종 말기에 신명을 바쳐서 정암과 기묘명현들의 신원을 끈질기게 탄원하여 왔었고, 그의 정성과 주장이 율곡(栗谷) 등의 사문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후임의 군주들에게 수용됨으로써 사실상 정암(靜庵)이 부활하는 기세를 얻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정암의 지치주의가 한국 유학과 치세의 정론으로 정립되었고, 그 후 탕평책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꿈꾸어 온 정조 대왕으로부터 전폭적 추앙과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포은에서부터 정암까지와 하서, 고봉, 사암, 율곡을 이어서 내려오는 기묘명현들의 후손, 후학과 후진을 연결시켜서 그들의 지치적, 민본적, 우국애민 사상이 임진왜란과 호란과 의병과 독립 운동을 거쳐서 오늘의 민주적 국민 운동까지 연결되는 맥락에서 하서를 재조명하는 체계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올 김용옥의 理氣論

기(氣)라는 것은 우주 생성의 가장 원초적 최소한의 단위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단위는 물질이나 정신과 같은 실체의 개념으로 접근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자! 여기서 사건이라 함은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이며, 개방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멸이 있다는 것이다. 기는 생멸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기의 생멸은 반드시 그 일부를 타자에게로 감입(感入)시킨다. 그리고 감입되지 않은 부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새로운 생성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천지유량(天地有量)'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의 우주는 거시적으로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의 생멸의 조합방식은 무궁하다. 동방인의 우주는 애초에 무한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무한은 반드시 유한속에서만 존재한다. 유한의 조합 방식, 그 생성이 무한한 것이다……

기(氣)는 감(感)이라는 것이다. 기(氣)는 감(感), 즉 느낌의 덩어리이다. 기는 자체로서 느낌의 활동을 본유(本有)하고 있다. 느낌이란 타의 기를 분수(分受)하는 것이다. 분수는 일종의 향유이므로 배타를 동반한다. 배타는 나의 기의 구체성의 형식이다. 구체성이란 몸이 형성되어 가는 한정성이다. 이러한 구체성의 형식을 리(理)라고 하는 것이다. 『주역』 「계사」에서는 '감이수통(感而遂通)'이라는 말을 썼다. 기는 감발(感發)하면서 타의 기를 통섭해가면서 하나의 리(理)의 체계로써 소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리(理)는 기 밖에 있는 어떤 이데아적인 실체가 아

35페이지로 이어짐 →

2012년 하계 학술 강연회 열리다

7월 4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2012년 하계 학술 강연회가 지난 7월 4일 필암서원 집성관(集成館)에서 본회 회원과 이 고장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강연회에 앞서 보성 향교 선재성 씨가 백록동학규를 낭독하였고 본회 오인균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양수 정성균수는 필암서원이 201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학술 강연도 열었고, 8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받으러 필암서원을 다녀갔다고 보고했다.

이 날 필암서원 원장으로 추대된 박병호(朴秉濤) 교수(한국학술원 회원)가 특별히 격려사를 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박교수는 “영남에서는 퇴계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모든 것이 퇴계로 집중되어 있고, 호서에서는 우암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호남에서는 제각각이라는 미호 김원행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하서가 오래 살지 못하고 관직에도 오래 계시지 않아 제자들이 많지 않아서 모두가 너무 자존적이라고 말하고 산양회가 이 고장 유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서를 통해 옛것을 이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선비 교육, 청소년 교육, 청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본 강연에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인 박명희 박사는 『하서 김인후 선생 시

에 대한 후대인의 비평』(강의원고 19호 게재)이라는 논제로 강연하였다.

박명희 박사는 하서의 시에 대한 역대의 평가를 ① 시작의 천부적인 재능을 부각한 경우 ② 하서 선생의 시와 인품을 연결지어 설명한 경우 ③ 하서 시학의 연원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박명희 박사는 하서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 창작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으며, 이전 천부적인 재능은 훗날 순발력을 요하는 예술관이 될 수 있게 하였고 하서 선생의 시와 인품을 연결시켜 그의 절의 정신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하서 시의 연원을 논의한 다음 하서 선생은 성리학자이지만 순수서정을 읊은 시인으로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박병호(朴秉濤) 필암서원 원장 약력

영산 박병호 교수님은 1931년에 해남 화산면 월호리에서 전남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성당 박철수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1955년에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8년 간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의 전통법 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치셨다. 한국 법제사라는 기초법을 체계화시키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했다.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법과대학장, 한국고문서학회장, 한국가족법학회장을 역임하셨다. 1996년 정년 퇴임한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초서 연구과 정에서 한국고문서학과 초서 사료 강독을 하였고, 정신문화연구원의 초

서강독, 고문서학회 창립 및 연구지를 발간하여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다.

이와같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에는 한국학술원 회원이 되는 영광을 안으셨다.

2007년에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이 수여하는 제3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다. 상금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더 보태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제정하여 5회째 시상함으로써 후진을 양성하고 계신다. 77년 동안 붓과 인연을 맺어온 박병호 교수님은 오랜 시간 서예에 대하여 공부하고 많은 전적들을 살피 서법(書法)의 원리를 탐구하여 독창적인 필체로 일가를 이루셨다. 2012년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예전을 열어 서울법대의 발전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셨다.

이와같은 대석학을 필암서원 원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필암서원의 크나큰 자랑이요 이 고장 유림들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약력 정리 : 편집주간 김재수)

2012년 정기총회 준비 이사회 겸 산양회보 편집회의

2012년 정기총회 준비 이사회와 산양회보 제 20호 편집회의가 지난 12월 15일 15시에 광주향교 옆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오인균 이사장을 비롯하여 정환담, 양희택, 박래호, 김재수, 김병국 이사과 윤장현 부회장, 김용숙 상임고문,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가 참석하였다.

총회 날짜를 대통령 선거 관계로 12월 27일

(목)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기로 확정하였다. 초청 연사로는 정환담 유교대학장이 결정되었다. 지난번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회원 주소록 점검 및 인쇄, 발송록 점검, 고문 추대에 대해 논의하고 2012년도 결산안과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젊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河西 研究會」 창립을 내년에 준비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위임을 받았다.

김인수 문전공 도유사로부터 「하서학술재단」으로부터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필암서원, 아는만큼 가까워진다(김병원 감독)」가 광주국제영화제에 상연되었다고 보고 받았다.

곧이어 본 회보 20호 편집회의를 열어 표지화로는 훈몽재 복원 사진, 하서 선생의 「홍문관 차자」,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안동교 교수의 논설을 싣고, 정환담 유교 대학장의 강연 원고를 싣기로 했다.

오종일 교수, 「河西의 삶과 학문」 강연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

오종일 전주대 명예교수(본회 부회장)가 지난 3월 20일 광주민속박물관 문화 강좌에서 「하서 김인후의 삶과 그 학문」에 대해 열강하였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서의 도학 사상」이란 연제로 강의하였다.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는 광주민속박물관 문화 강좌에서 「호남의 기묘명현 최산두와 양팽손」에 대해 강연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안동교 박사 「하서 김인후의 강학활동과 훈몽재」 강연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과 광주교육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소장 김덕진)는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 광주교대 교육매체관에서 「조선시대 호남교육의 실상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제7차 학술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조선대 고전번역센터 선임연구원인 안동교 박사는 ‘하서 김인후의 강학활동과 훈몽재’를 발표하였다.

안 교수는 하서는 옥과현감시절에 학문의 표준을 공주(孔朱)의 성법(成法)에 둘 것을 요구했고, 훈몽재시절에는 대학강의발(大學講義跋)을 지어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경전의 정문(正文)에 나아가 한자 한자 자세히 음미하고, 아울러 ‘대학장구’, ‘대학혹문’, ‘대학강의’를 가지고 서로 참고하여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서는 평생을 통해 ‘대학에 가장 힘을 기울였다’고 역설했다.

순창 ‘훈몽재 옛터’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하서 김인후(1510~1560)선생의 강학당이었던 순창군 쌍치면 훈몽재 옛터가 최근 전북도 문화재 자료(제189호)로 지정됐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훈몽재 유지’가 조선 중기 호남성리학을 이끈 하서 김인후선생의 교육과 관련된 유적으로, 호남 유학 발달사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훈몽재 유지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것이다.

하서 김인후선생은 인종의 세자시절 스승으로,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文廟)에 배향된 조선 중기 대표적 도학자이다.

1548년(명종 3년)에 순창 점암촌 백방산 자락(현재 쌍치면 둔전리)에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강학당이 훈몽재다.

훈몽재 유지는 2005년 전주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15~17세기 유물이 70여점 발굴되자 하서 14대손 김상열이 3000평 부지를 구입하여 순창군에 기부함으로써 순창군은 2009년 훈몽재를 복원 중건하여 한학과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내실 있는 훈몽재 운영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쇄원, 사진으로 보는 48 경치 담양문화회관에서 11월 2~7일 전시

소쇄원은 인품이 맑고 깨끗해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산이다. 정암 조광조가 꿈꾸던 이상세계가 좌절되자 그의 제자들이 만든 ‘작은 천국’ 소쇄원, 물을 뿌린 듯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일깨우는 곳! 바로 소쇄원이다. 그 소쇄원에 마흔 여덟 개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그것을 노래한 시가 바로 하서 김인후가 쓴 ‘소쇄원 사십팔영’이다 그리고 그 시경을 다시 카메라의 렌즈에 담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전남대학교 김신중 교수는 거기에는 온갖 자연물을 배경으로 한 산수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사계절을 관통하는 물리의 세계는 물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꿈꾸었던 옛 선인들의 삶의 모습 및 세상사의 이치가 그림처럼 펼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의 작은 정자, 물소리 들리는 글방 풍경, 위태로운 바위를 감싸고 떨어지는 폭포,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한 거북바위, 속세를 떠나 돌길을 오르는 은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 송창근은 “소쇄원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인연으로 계절 따라 변해가는 소쇄원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었고 옛 시절의 숨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내용들이 함축 되어 있는 소쇄원 48영 한시(漢詩)를 사진으로 재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학자 하서 김인후선생 추향제

10월 3일 필암서원에서

10월 3일(음 8월 18일)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탄신 502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도학자인 하서 김인후선생을 기리는 추향제가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오인균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정남호 광주향교 전교, 이상용 장성향교 전교, 김양수 장성군수, 김행훈 장성군의회 의장, 전국 유림과 주민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사는 봉진례, 전폐례, 초헌례 순서로 제례행사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 학장이시며 필암서원 원장인 박병호 박

사가 초헌관을, 광주향교 정남호 전교가 아헌관을, 창평향교 고광선 유림이 종헌관을 맡아 수고하였다.

초헌관을 맡았던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은 추향제를 마친 뒤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학문에 대한 史官들의 평가”를 주제로 강론했다 박원장은 “정조때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 중의 한 분으로 인종이 죽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장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호남의 유종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선생은 당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고 임금에게 직언하며 끝까지 절의를 지켰다”고 덧붙였다.

하서 추모 유적지 탐방 글짓기 시상식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과 필암서원에서는 2012년 10월 3일 (음 8월 18일)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를 봉행한 후 금년 체험 글짓기 수상자를 발표하고, 금상을 수상한 사창초등학교 5학년 한홍운 학생이 쓴 ‘장성을 아름답게 꽃피운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라는 글을 하서선생의 영전에 봉독하였다.

은상에는 진원초등학교 5학년 김시형 학생의 글 ‘하서 김인후 선생님과의 1박 2일!’ 동상에는 북일초등학교 5학년 이지운 학생 글 ‘재미있고 특별한 필암서원 탐방’ 이 각각 당선되었다.

본 행사의 장기적 목표는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학생들의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서학술재단

필암서원 학술 행사 등 지원 확대

재단법인 하서학술재단 김상하 이사장은 ‘필암서원’이 주최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현들의 유적지 탐방 기행문 글쓰기 대회’와 전국 유림을 중심으로 매년 하서 선생을 추모하는 춘·추향제의 전야제 행사 등에 2013년부터 1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전야제 행사로는 유림들의 유교 고전 강독 및 한시 글짓기 대회, 춘·추향제 후 청중 교육을 시행한다.

김상하 이사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시고 동국 18현이신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이 유림과 청소년 정신 교육의 장이 되어 전국 서원의 선도적 역할 및 모범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필암서원 ‘문화 공간’ 조성

추암천 생태 공간 본격화 사업으로

짙은 묵향과 선비 문화를 담고 있는 필암서원과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축령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추암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서삼면과 황룡면을 잇는 중심 하천인 추암천 정비사업으로 2013년 1일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총 4.9km 구간에 징검다리, 폭포, 자전거 도로, 생태 습지, 문화 공간, 생태 하천을 갖춘 친수여가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필암서원 중심의 문화 공간’ 사업으로 생태수로, 산책로, 빨래터, 마운딩 산책로, 장식

가벽, 초화원, 주민 운동 시설, 전통놀이 마당, 수로형 어도, 앉음벽, 포켓 쉼터 등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생식물과 각종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 및 갈대밭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와 징검다리, 어류 서식처 등 관광객 및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학생들의 생태 학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회 회원들 은봉 安邦俊 선생의

大溪書院 複設式 참석

은봉 안방준 선생을 모셨던 대계서원이 은봉 선생 기념 사업회와 보성향교의 노력으로 다시 세워졌다. 11월 10일 보성읍 동암 2길에서 김재경 전교, 선병국 전 전교, 안종덕 유도회장, 이고장 유림들과 본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패 奉安式과 享祀禮가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필암서원 박래호 집강의 집례로 진행된 향사에 필암서원 본손 김인수 도유사가 초헌관을, 大田 文忠祠 송영문 씨가 아헌관을, 竹川 선생 후손 박형인 씨가 종헌관을, 순창 훈몽재 김충호 훈장이 축관을 맡아 수고하였다.

鶴奉 高因厚 선생의 神道碑 제막식 참석

지난 11월 23일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향동에서 임진왜란 의병으로 순절했던 의열공 학봉 고인후 선생의 신도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본회의 두전 글씨를 비롯 국한문 혼용 비문을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이 썼다. 본회의 김인수, 박래호, 김장수 회원이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본원 선비학당 大學 · 中庸 강독

본원 선비 학당에서는 박래호 학장이 매주 수요일에 大學을 강독한 후 서예를 익히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中庸을 강독하고 있다. 본회 박래호 총무가 한국국학진흥원 명예 자문위원 위촉장을 본원 시청각실에서 받았다.

본회 김용하 회원(광주고 교장) 정년 퇴임

본회원 김용하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한 광주고에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하여 8년 6개월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학교 표창 세 차례, 수능 최우수 학교 표창, 전국 수학 · 과학 우수학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교장은 2007년에는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덕천 청소년 선도대상, 2010년 장원 사도 대상을 받았다.

지난 8월 24일에 40여년 교단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했다. 앞으로 교육자로서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한다.

경남 居昌 유도회 웅양면지회 필암서원 방문 봉심

지난 11월 3일 오후 조 웅양 지회장은 회원 39명과 함께 본원을 찾아 우동사를 봉심하고 元眞閣 유물을 관람한 후 集成館에서 임진년 정기총회 및 예절교육을 가졌다. 본원 박래호 집장이 예절교육을 하였다.

니다. 리(理)는 오로지 기가 발현하는데 따라서, 그 감(感)에 즉하여 스스로 그러하게 자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理)가 스스로 자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퇴계가 기발(氣發) · 리발(理發)을 동시에 인정하여 호발성을 주장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까지는 가하나,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는 불가하다. 기고 봉은 ‘리발(理發)’의 불가함을 매우 명료히 지적하였으나 자기의 논리를 끝까지 관철하여 일가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상적 흐름은 율곡이 단호하게 ‘리발(理發)’을 거부하고 오직 ‘기발’만을 고집하여 기론적 순결성을 견지하였다. 천지에 기화(氣化)는 있으나 리화(理化)는 없다는 것이다. 대우주인 천지에 리화 · 기화의 구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소우주인 오심(吾心)에 리발 · 기발의 차이가 있으랴 만약 주자가 진실로 리기호발을 주장하여 리와 기가 서로 대(對)하여 각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주자 또한 오류에 함몰된 것일 뿐이라고 율곡은 일갈한다……

그러나 율곡은 인심과 도심을 모두 “한 마음”으로 파악하며 양자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처럼 도덕을 물자체의 세계로 이월시키지 않고, 현실 세계 속의 ‘수신(修身)’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리발’이라는 것은 오히려 순수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독단의 가능성이 강한 위험한 것이며 인간을 허황되게 만들 수 있다. 후대의 다산이 같은 남인으로서 퇴계를 존송하면서도 리 · 기의 심성론에 관해서는 젊은 날 정조와 『중용』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율곡의 입장을 지지했던 것은, 율곡이나 다산이나 현실적 인간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실사구시의 사회의식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말자. 182~186쪽에서 뽑음〉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 名	金 額
전남 무안 배석오	100,000원
전남 무안 김인섭	100,000원
전남 무안 김선호	100,000원
전남 보성 안규옥	30,000원
전남 장성 김재수	50,000원
전북 전주 김상혁	30,000원
전북 고창 한종기	20,000원
전북 고창 한상옥	50,000원
광주 북구 김용규	30,000원

特別會費 誠金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광주 동구 최상옥 회장	100,000원
광주 동구 정환담 이사	100,000원
광주 서구 정채호 이사	300,000원
광주 북구 김병국 별유사	300,000원
광주 북구 김종환 본회 감사	200,000원
광주 서구 윤장현 본회 부회장	100,000원
광주 서구 장원석 본회 이사	500,000원

추모 화환

울산김씨 대총회장 김달수
 광주향교 전교 정남호 / 성균관 부원장 박태준
 울산김씨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장성 종친회 김 광 / 장성 공직자 모임
 그레이스 회원 김동원

2012年 10.3(陰曆 8.18)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성 명	금 액	비 고
백 일 장	2,330,000	백일장 지원금
김 상 국	2,000,000	문정공부도유사
김 상 표	1,000,000	고문, 맥동파
오 인 균	500,000	산양회이사장
김 인 수	500,000	문정공 도유사
김 달 수	300,000	울김대총회장
김 양 수	200,000	장성 군수
김 상 현	100,000	문정공부도유사
김 상 돈	100,000	문정공부도유사
김 재 승	100,000	문정공운영위원
김 병 국	100,000	필암사원별유사
김 상 술	100,000	회암공 회장
김 경 수	100,000	문정공운영위원
김 창 수	100,000	계파 도유사
정 환 담	100,000	광주향교 유교대학장
김 종 옥	100,000	장성 교육장
김 종 환	100,000	문정회 회장
김 재 일	100,000	문정공운영위원
안 병 현	100,000	장성농협지부장
김 관 중	100,000	장파 도유사
김 용 대	100,000	밀등회 회장
김 문 수	100,000	MS 피아소 소장
변 완	50,000	봉암사원 별유사
정 종 연	50,000	장성군 바르게살기 회장
이 갑 규	50,000	축관, 대구유림
김 재 수	50,000	산양회 부회장
김 영 수	50,000	황룡 면장
김 형 수	50,000	유림(광주시 계림동)
배 석 오	50,000	산양회 회원(무안 청계면)
차 장 곤	50,000	장성 축협 조합장
김 성 수	50,000	문정공운영위원
김 종 열	50,000	북이면종친회장
장 경 순	50,000	계림 1동 수성경노당회장
윤 태 호	30,000	필암리, 전 중앙여고 교장
이 흥 주	30,000	광주 윤암동
박 춘 곤	30,000	별유사(장성읍 대창동)
김 영 풍	30,000	장성 문화원장
37명	9,000,000	

- 알 림 -

본 회 2012년 정기총회 및 30차 학술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27일(목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河西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 정환담(전남법대 명예교수, 본회 이사 겸 부회장)

2. 원고 모집 안내

- ① 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새 주소록 변경 안내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 변경된 전화번호도 꼭 적어주십시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	本貫 :	雅號 :	生年月日 :
住所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	學歷 및 經歷 :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품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품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강연함.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율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에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